



하하하하하

무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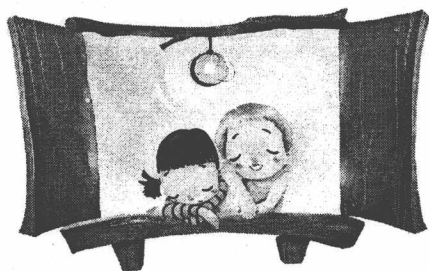
박수강 신숙자 편



연변인민출판사

세계유모아

박수강 신숙자 편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朴黎花

责任校对: 南今月

技术设计: 张学峰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世界幽默: 朝鲜文 / 朴秀岗, 申淑子编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10

ISBN 978-7-5449-0679-1

I. 世… II. ①朴…②申… III. 幽默(文学)—作品集—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1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84528号

世界幽默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0.875 字数: 243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79-1 (民文)

版次: 2009年10月第1版 2009年10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6.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례

부모와 자식	1
교원과 학생	63
명인과 평민	105
친구와 손님	138
의사와 환자	158
주인과 손님	178
상급과 하급	217
문학과 예술	238
법률과 생활	248
종교와 미신	269
어리보기와 게으름뱅이	281
욕심쟁이와 파쟁이	302
피쟁이와 무식쟁이	317
허풍쟁이와 고집쟁이	329
익살과 야유	334

부모와 자식

내 시험성적은 낮아져요

“에이, 요즘은 무슨 물건이나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먹는 것도 쓰는것도. 나중에는 놀이감도 비싸지겠단 말이야. 어느 한가지라도 낮아지는것을 보면 좋겠는데...”

말애가 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더니 인차 자기의 학습장을 가져다주었다.

“어머니, 내 시험성적을 보세요. 이건 자꾸 낮아져요.”

점수가 많지 못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표를 보더니 성이 나서 물었다.

“넌 왜 산수를 1점 밖에 맞지 못하였니?”

“아마 선생님에게 점수가 많지 못했던거겠지요!”

아들이 대답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감상

아버지: “피터, 넌 중학교에 붙었니?”

아들: “네, 붙었어요.”

아버지: “괜찮구나. 중학교에 붙고보니 감상이 어땠니?”

아들: “내가 선생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그건 왜?”

아들: “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소학교에 있으니까요.”

공부에 불성실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베비, 넌 수업시간에 무엇을 하였니?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선생님이 나한테 다 말해줄거다. 솔직히 말해. 너의 학급에서 공부에 불성실한 사람이 누구냐?”

베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어디 대답해봐. 다른 학생들이 다 책을 들여다보고 글을 쓰고있을 때 두리번거리면서 사방을 살펴보는 사람이 누구냐?”

베비: “그건 우리 선생님이예요.”

낮은 점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아들: “아버지, 아버지는 두 눈을 감고도 자기 이름을 쓸수 있나요?”

아버지: “물론 쓸수 있지.”

아들: “그럼 어서 두 눈을 감고 나의 성적표에 수표해주세요.”

아버지: “도대체 몇점을 맞았길래...”

제일 적게 틀렸기때문에

손자가 새 책 한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나 상 탔어요.”

“무엇 해서?”

“자연시간에 선생님이 타조에게 발이 몇개인가고 묻길래 내가 3개라고 대답했어요.”

“타조는 발이 2개 아니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4개라고 대답했거든요. 내가 제일 적게 틀렸기때문에 상을 내가 탔지요 뭐.”

나 대신 학교에 가주세요

“내가 너만했을 때 돈이 없어 학교에 못 다녔다. 그리고 그땐 학교도 매우 적었던단다.” 아버지가 1학년이 다니는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아버지, 그럼 지금 나 대신 학교에 좀 가주세요.”

잘 리해하지 못하다

아버지: “뽀뜨르, 너의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 선생님의 질문을 잘 리해하지 못한건 아니냐?”

뽀뜨르: “아니예요. 선생님이 나의 대답을 잘 리해하지 못 하였습니다.”

식당에 갈 돈이 절약된 셈

아들이 중학교입학시험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애야, 시험을 잘 쳤느냐? 네가 중학교에 붙으면 내가 한턱 내겠다. 너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한끼 푸짐히 먹자꾸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말하였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식당에 갈 돈은 절약된 셈이에요!”

아들이 말하였다.

딸이 좋아하는 과목

아버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뭐냐?”

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아버지: “정말이냐?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 기쁘다.”

딸: “예, 우리 수학선생님은 수학시간에 늘 외출하거든요.”

말 뜻을 파악 못한 학생

저녁밥을 먹을 때 소학교에 다니는 막내가 걸상에 앉지 않고 선채로 수저를 놀리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넌 오늘 어떻게 된 일이나? 왜 서서 밥을 먹니?”

“오늘 문학시간에 선생님이 ‘앉아서 먹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거덜이 난다’고 가르쳤어요!”

막내가 대답하였다.

공부시간이 재미 없어요

소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학교 다니기가 재미 있는가고 물었다.

“나는 학교 가기도 재미나고 집에 돌아오기도 재미나요. 그런데 그中间的 공부시간이 재미 없어요!”

아들이 대답하였다.

뽕 차려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에익, 이 녀석. 너 혼쌀 좀 나봐라! 너 오늘 학교에서 뽕소니쳐서 뽕 차려 갔잖는지?”

아들: “난 뽕 차려 가지 않았어요. 이것 보세요. 이 물고기 퀘미를! 물고기를 축구장에서 잡을수야 없지 않나요?!”

교과서값을 절약하게 되었어요

아들: “아버지, 아버지는 돈을 절약하게 됐어요!”

아버지: “무슨 돈을 절약해?”

아들: “올해는 내 교과서를 사지 않아도 돼요. 락제했으니까요.”

자기탓이 아니라면서

아버지: “미짜, 넌 부끄러운줄도 모르니? 넌 이젠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미짜: “그게 뭐 내탓인가요? 누가 우리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를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래요?”

잃어버린 버무다

“넌 어떻게 된 일이나? 오늘은 왜 그렇게 울상이 돼서 그러니?”

마리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버무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지리선생님이 나를 막 욕하였어요.”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마리아, 넌 왜 그렇게 잃어버리기를 잘하니? 빨리 잘 찾

아봐라. 그게 어디겠느냐?”

선량한 마음이 대견하여

“어머니, 나 돈 좀 주세요!”

“돈은 해서 뭘 하려고?”

“저 뒤골목에서 소리치고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려고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것처럼 선량한 마음이 있는것이 대견하여 돈을 꺼내주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뭐라구 소리치더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다.

“‘얼음과자를 사시오. 얼음과자요.’ 하고 소리쳤어요.”

일리가 있는 아들의 물음

아들: “아버지, 왜 일본의 수도는 한문으로 동경이라고 하고 중국의 수도는 한문으로 북경이라고 쓰나요?”

아버지: “그것은 동경이 일본의 동부에 있고 북경이 중국의 북부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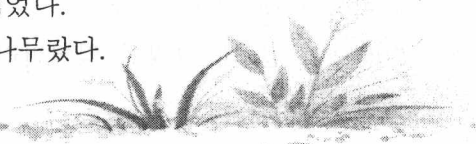
아들: “그럼 수도가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 다 중경이라고 써야 되겠군요!”

아버지: “그래,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제부터는 앞서 뛰겠어요

유치원생인 아들이 옆집 계집애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다고 짐작한 아버지가 하루는 남자의 자존심이 무엇인가를 아들에게 설명해줄기로 마음 먹었다.

아버지는 아들녀석을 나무랐다.



“애, 썰료쟈야. 너는 어째서 계집애의 뒤를 쫓아다니느냐? 계집애가 따라다니도록 해야 그게 사내란 말이야!”

“그래요. 아버지, 내가 무엇때문에 그 애의 뒤를 따라다니겠나요? 이제부터는 단번에 쪽 앞서 뛰겠어요!”

썰료쟈가 대답하였다.

문제란 뿔과 같은거다

학교에서 선생이 내준 숙제문제를 풀지 못하여 골머리를 앓고있던 알료샤가 부부장으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문제란 무엇인가요?”

“문제란 뿔과 같은거야. 부장이 나에게 차보내면 내가 다시 주임에게 차보낸단 말이야!”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알료샤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거참 훌륭한데요! 선생님이 나한테 뿔을 2개나 주었는데 하나는 아버지에게 또 하나는 어머니한테 차보낼래요.”

큰 나라도 싸우지 않나요

어머니가 아들을 엄하게 꾸중하였다.

“넌 이렇게 큰 녀석이 왜 자꾸 싸우는거냐?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자 아들이 변명하였다.

“큰 나라도 서로 싸우지 않나요? 시끄러운줄도 모르고...”

아직 살아지지 않은것

한 사내애가 아버지를 따라 시골길을 걷고있는데 앞에서

소 한마리가 뛰어오고있었다.

“무서워 말어! 저건 소야. 넌 늘 소고기를 먹지 않니?”

아버지가 당황해하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그렇지만 저 소는 아직 살아지지 않았는걸요!”

아들이 말하였다.

비가 올 때에만 샀어요

밀레르가 여름철야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재미 있던 야영생활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흥미 있게 들으면서 더러 묻기도 했다.

“애야, 천막이 비가 새지 않더냐?”

밀레르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비가 올 때에만 새군 했어요!”

아들의 물음에 자극을 받을 대신

아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비옷과 장화, 장갑, 비누, 수건, 작업복을 다 어디서 얻어왔나요?”

어머니: “너의 아버지는 공장의 노동보호물자관리원이야. 이것은 아버지가 상품으로 받은거야!”

아들: “그럼 아버지는 왜 표창장을 받아오지 못했나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것을 관리하지 않는단다.”

고기미끼를 먹어치우길래

낚시질하러 가겠다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어린 누이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싫어요. 전번에는 그 애때문에 한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들이 싫다는것이였다.

“데리고 가봐라. 오늘은 이 애가 조용히 앉아있을게다.”

“떠들어서 못 잡은게 아니예요. 어머니, 그 애가 고기미끼
를 몽땅 먹어치웠댔어요.”

수업시간에 많이 잤어요

아버지: “애야, 넌 왜 밤에 잠을 못 자느냐?”

아들: “아버지, 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많이 잤어요.”

“철”이 든 아들

15살 난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누워있기에 물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밥하는 일은 걱정마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하였다.

“제가 어머니를 부엌까지 업어다드릴게요!”

바로 저예요

아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한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졌어
요. 모든 애들이 다 웃었는데 나 혼자만 웃지 않았어요.”

어머니: “네가 잘했다. 넌 정말 좋은 애로구나. 그런데 물
웅덩이에 빠진 애가 누구냐?”

아들: “바로 저예요...”



래일 씻으세요

“어머니절” 저녁에 어머니가 씻어야 할 술한 그릇들을 바라보며 딸애가 걱정스레 말하였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명절인데 그릇을 씻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이기 감동되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딸애가 다시 말하였다.

“내버려두었다가 래일 씻으세요!”

천사란

아들: “천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머니: “날개가 돋치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이다!”

아들: “그럼 이상한데요. 어제 아버진 우리 집 식모아지미를 보고 ‘너는 나의 천사’라고 했는데 아지민 날줄 모르지 않나요?!”

어머니: “내 오늘 그년을 당장 날려보낼테다!”

아버지를 그리다가

어느날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려도 아버지와 비슷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림재간이 한심하다고 비웃었다.

“이렇게 하세요. 아예 꼬리를 달아놓아 원숭이를 만들어놓아요!”

아들이 말하였다.

전보를 타고 떠나면

어머니가 전보를 받아들고 기뻐서 아들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의 아버지가 전보를 보내왔는데 래일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누나.”

“어머니, 전보가 빠른가요, 아니면 비행기가 빠른가요?”

“아, 그거야 응당 전보가 더 빠르지!”

“아버진 정말 한심해요. 전보를 타고 떠나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게 아니예요!”

육상경기에 의문을 가지는 아들

말리슈가 아버지와 함께 육상경기구경을 하고있었다.

“아버지, 저 아저씨들은 왜 저렇게 빨리 달리나요?”

“이건 달리기경기란다. 제일 먼저 달리는 사람이 1등인데 상품까지 준단다.”

“그러면 저뒤에 떨어진 아저씨들은 왜 빨리 달리나요? 그들도 상품을 가질수 있나요?”

어머닌 어떻게 알았나요

잭슨부인이 어린 아들을 나무람하였다.

“내가 몇번이나 가르쳐주었느냐? 식전에 기도를 드릴 때는 눈을 감으라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넌 말을 안 듣고 매번 눈을 뜨지?”

“그런데 어머닌 내가 눈을 뜨고있다는걸 어떻게 알았나요!”

아들의 귀를 보고

“넌 귀가 그렇게 큰걸 보니 앞으로 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그런것 같지 않아요.”

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다.

“돼지도 귀가 큰데 그놈이 어디 복을 누리고있나요?”

한번 더

연회장에서 관중들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한번 더(재청!)” 하고 소리쳤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찰리란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리치나요?”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니 관중들이 좋아서 그런단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얼마 안되어 찰리의 어머니는 찰리의 녀동생을 낳았다.

찰리는 너무 기뻐 병원에서 큰소리로 웨쳤다.

“한번 더! 한번 더!”

돈을 절약하였다는 자랑

“어머니, 난 오늘 1마르크를 절약했어요.”

“어떻게 절약했느냐?”

“아주 쉽게 했어요. 어머니가 마리아부인에게 보내는 익명의 편지를 나는 우편국에 가져가지 않고 직접 그 부인에게 가져다주었어요!”

바지 벗을 새가 없었어요

틈은 미끌어 넘어져 온몸에 진탕이 묻은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 장난꾸러기야, 이 좋은 바지를 입고 넘어지면 바지가

무엇이 되니?”

어머니가 아들을 꾸지람하였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미끌어 넘어질 때 미처 바지 벗을 새가 없었어요!”

툼이 용서를 빌며 말하였다.

거리간격과 시간간격

“베를린으로부터 함부르그까지의 거리와 함부르그로부터 베를린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갈구말구. 거야 물어볼나위가 있니?”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로부터 부활절까지의 거리와 부활절로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거리는 서로 다르나요?”

아들이 다시 물었다.

늦잠 자는 타당성

“어서 일어나거라. 이 게으름뱅이야! 해남도 일어난지 오랜데 넌 아직도 자느냐?”

어머니가 늦잠을 자는 아들을 보고 소리쳤다.

“해님은 저녁 6시부터 자지만 난 10시가 지나서 자지 않나요?”

아들이 불평조로 말하였다.

만병처방인 줄로 알고

“어머니, 난 배 아파요!”